"영어 잘하려면 문법책 버려라"

토익시험서 16회 만점 정병문씨

한 번도 만점을 받기 힘든 토익(TOEIC) 시험에서 16차례나 만점을 기록한 학원강사가 있다. 대기록의 주인공은 대전의 한 영어학원에서 강사를 하는 정병문(36)씨.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정기시험까지 12차례 연속 만점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2003년 2월부터 토익시험에서 16차례나 만점(990점)을 받았다.

정씨는 토익 만점의 비법으로 영어의 생활화를 꼽았다. 책상에 앉아 영어책과 씨름하는 것보다는 언제라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는 것. 그는 짬만 나면 영어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서 말한다고 한다.

정씨는 "영어에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다 보면 어느새 영어 문장이 수십 개 단어가 아니라 3~4개의 의미 덩어리로 보이고 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문법과 단어 위주의 '죽은 영어'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어'를 배워야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실생활에서도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정씨는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선 문법 책을 던져버려야 한다"며 "재미없는 문법책과 독해책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가 싫어지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즐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은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10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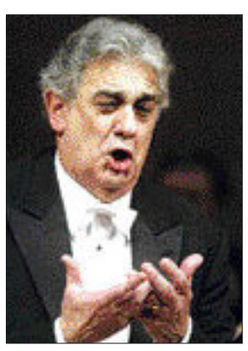
英 윌리엄·해리 왕자, 추모 콘서트 연다

고(故)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의 두 아들 윌리엄(사진 왼쪽)과 해리 왕자가 내년에 다이애나비의 사망 10주기를 추모하는 콘서트를 열 계획이라고 영국의 대중지 선데이 미러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두 왕자가 2007년 7월1일 런던 웸블리구장에서 열릴 예정인 추모 콘서트를 직접 주관할 것이라고 전했다. 콘서트는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엘튼 존 등 음악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콘서트 수익금은 노숙자 자선단체인 센터포인트와 다이애나비가 생전에 지원했던 활동 등에 기부 될 예정이다.

플라시도 도밍고, 개도국 '난청자' 돕기 캠페인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가 개발도상국의 난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도밍고는 28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빈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난청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개발도상국 난청자 지원을 위한 비영리재단 '세계를 듣기'(Hear the World)의 발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두고 40만달러(약 3억7천만원)의 기금으로 내년 1월 본격 활동을 시작할 '세계를 듣기' 재단은 스위스의 첨단 보청기 제조업체 '포낙'(Phonak)의 후원을 받게 된다.

도밍고는 25일 AP와 인터뷰에서 "음악은 내게 있어서 감성적 갈망이다. 따라서 음악을 감상할 수 없는 이들에게 슬픔 감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 전남도 여성대회 '동백대상' 이 수 애 목포대 교수

"여성 스스로 권익찾기 나설 때"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는 개인생활 차원에서는 괄목하게 향상됐지만 정치·사회적 면에서는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의 개인 권리는 크게 개선됐으나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남성에 비해 불리한 처지인 '이중구조'에 갇혀있는 셈이죠."

최근 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송자)가 주최한 '제9회 전라남도 여성대회'에서 여성권익 및 복지 증진에 힘쓴 공로로 동백대상을 받은 이수애(57) 목포대 교수는 "특히 정치·사회분야에서의 여성권익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982년 목포대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성학강좌를 개설하고 '광주여성의 전화', '목포여성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힘쓴 공으로 이날 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사회발전과 함께 여성들의 교육수준이나 평균수명을 포함한 개인 복지와 가정생활에서의 지위는 매우 좋아졌다. 그러나 고위직 공무원 진출이나, 정치참여 측면에서는 남성에 비해 미흡하다. 특히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위직 및 정무직 공직분야 진출은 미미한 실정이어서 힘을 쓰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여성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한 두 사람의 상징적인 차원의 여성참여가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출산은 부실한 여성복지制 탓

유아때부터 양성 평등교육 필요"

그는 또 남녀평등을 위한 사회제도 강화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어렸을 적부터 학교나 사회기관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법론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은 여성복지 소외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자녀 양육이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큰 지장을 불러와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부실한 여성복지제도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여성 스스로도 권익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권익은 노력한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

광주 학생들 '발명상상'도 뛰어나네

전남여상 허애진양 캐릭터 '대상' 등 14명 입상

'전국 학생발명상상화대회'

한국학교발명협회가 주최하는 '2006 전국 학생 발명상상화 및 캐릭터·디자인 그리기대회'에서 전남여상 2학년 허애진(사진 왼쪽)양이 고등 캐릭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광주지역 참가 학생 22명 중 64%인 14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냈다.

이어 김하늘(문우초 6년)양이 초등 발명상상화 부문에서 금상을, 노 솔(일곡초 6년)양과 노진아(첨단고 2년)양, 강예지(일신중 1년)이 각각 초등 캐릭터·고등 캐릭터·중등 디자인부문에서 은상을 받았다. 이 밖에 동상 5명, 장려상 4명 등이 입상했다.

한국학교발명협회 양동호(60·신광중 교장·사진 오른쪽) 광주지회장은 "지난 6월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창의성을 길러왔다"며 "학과 공부로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준 학생들이 너무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양 지회장은 "광주 지역 학생들이 지난해 입상률 60%대에 이어 올해도 놀라운 성적을 거둬 타 지역 교사나 관계자들이 비결을 물어오기도 한다"며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명에 대한 지속적인 학생과 교사의 관심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상필기자 camus@

농협동광주기업금융지점 '청렴 선언'

개설 2년만에 기업여신 5천억원을 달성한 농협동광주기업금융지점(지점장 이동일)은 최근 '청렴·반부패 선언식'을 갖고 고객맞이에 부끄럼 없는 봉사를 다짐했다.

중앙동 한사랑회 '사랑의 김치' 담가 전달

광주시 동구 중앙동 한사랑회(회장 이희승) 회원 18명은 25일 사랑의 김치 담기 행사를 벌여 관내 경로당, 홀로 사는 노인 등 90세대에 전달했다. 〈중앙동사무소 제공〉

뭐! 내가 포르노 배우라고

우즈 아내, 가짜 사진 게재 잡지사 고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아내 엘린이 자신을 포르노 배우로 몰아세운 잡지사를 고소했다.

로이터통신은 25일(한국시간) 엘린이 아일랜드의 잡지사 '더블리너'를 명예 훼손 혐의로 더블린 고등법원에 고소했다고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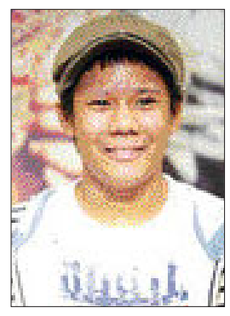
'더블리너'는 지난 9월 유럽과 미국의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이 열렸을 때 엘린과 닮은 한 여성의 포르노 사진에다 "여러 포르노 사이트에서 엘린이 야한 포즈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달았고, 이를 발견한 우즈가 격분한 적 있다.

엘린의 변호사측은 "엘린은 더블리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사진에 나온 여성은 분명 엘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블리너'는 당시 기사가 나간 뒤 문제가 커지자 "단지 풍자였다"며 우즈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재응·손예진 '남여주연상'

한국영화 아태영화제 6개부문 휩쓸어



'사랑해, 말순씨' 이재응

'외출' 손예진

박흥식 감독의 영화 '사랑해, 말순씨'의 남자 주인공 이재응이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51회 아시아태평양영화제에서 24일 남우 주연상을 받았다.

손예진도 '외출'(허진호 감독)에서의 호연으로 여우주연상을 받는 등 한국 영화계는 이날 남우조연상,편집상, 음향효과상등 6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다.

이란의 탈미네 밀라니 감독은 살인범의 탈주를 돕는 이란의 한 과부를 다룬 영화 ' 더 언원티드 우먼'으로 감독상과 최우수작품상을 거머쥐었으며 각본상도 이 영화에 돌아갔다.

밀라니 감독은 이란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번 수상으로 아시아의 저명한 영화 감독 반열에 올라섰다.

'5월 꼬마' 조천호 11월의 신랑 되다

지난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생 당시 6살의 나이로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있는 모습이 외신에 보도되면서 전세계의 심금을 울린 '5월 꼬마' 조천호씨가 26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영빈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5월의 꼬마를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 고은아(27)씨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거렸다.

주례를 맡은 조비오(68) 신부는 "80년 당시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그 꼬마가 벌써 자라서 어엿한 신랑이 된다니 감개무량하다"며 "사람들의 축복을 받은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

◆KTF

◇팀장 전보

〈법인사업본부〉

▲광주법인마케팅팀장 김영범

〈광주마케팅본부〉

▲사업지원팀장 김종원 ▲마케팅기획팀장 서광민 ▲고객지원팀장 안희용 ▲목포마케팅팀장 김장수 ▲순천마케팅팀장 김희천 ▲전주마케팅팀장 한동민 ▲제주마케팅팀장 이종훈

〈광주네트워크본부〉 ▲광주엔지니어링팀장 지영하

◇부장 승진 및 팀장 전보

〈광주마케팅본부〉 ▲광주마케팅팀장 박용만

〈광주네트워크본부〉 ▲광주시설팀장 이성주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송원섭씨 장남 화창군 최경택(전 광주일보 전산부장)씨 장녀 유미양=12월2일(토) 오후 1시 오페라하우스 웨딩홀 1층.

▲이재열(전 CBS 야구해설위원)씨 장남 대진(KIA타이거즈 투수)군 김경영(세원건설㈜ 대표이사)씨 장녀 지영양=12월3일(일) 오전 11시 4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양승인씨 장남 근석군 문일석(목포 제일여고 교장)씨 딸 필녀양=12월 3일(일) 오후 1시30분 서울 카톨릭출판사 마리아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상담 및 의료·법률지원=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 : //forchild.or.kr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 27회 동창회(회장 김연중) 월례회=27일(월) 오후 7시 거목. 651-8587

▲북성중 제 28회 동창회(회장 이혁) 월례회=28일(화) 오후 7시 등촌. 373-1566

▲북성중 제 29회 동창회(회장 고광재) 월례회=29일(수) 오후 7시 함평한우.515-0988

▲전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총동창회 송년회 및 골프모임=12월1일(금) 오전 11시40분 남광주CC. 오후 6시30분 센트럴관광호텔 4층 로즈홀. 011-602-0732, 016-636-3000

▲용산초교 총동문회 및 송년의 밤=12월2일(토) 오후 5시 현대극장 옆 광주관광호텔 10층. 011-604-4022

▲광주지산초교 제 38회 동창회(회장 최종채) 모임=12월2일(토) 오후 6시 무등골. 011-620-5729

종친회

▲창원황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황양선) 창원 시조묘 향사=27일(월) 오전 8시 광천동터미널 건너편 출발. 018-211-3344

향우회

▲재광 완도군 고금면 향우회(회장 김기문) 정기총회=12월1일(금) 오후 6시30분 메리어트웨딩홀. 364-6633

모집

▲살레시오초교 2007년 신입생 모집=남녀 54명씩 108명 모집. 원서 교부는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본교 수위실 및 학교 홈페이지(www.salesio.es.kr). 접수 및 면접은 11~14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추첨일 16일 오전 10시 본교 대강당. 전형료 1만원. 문의 227-1016

▲송원초교 2007년 신입생 모집=남녀 48명씩 95명(3학급) 모집. 12월1일부터 14일까지 본교 행정실 및 학교 홈페이지(www.k-songwon.es.kr)에서 원서 교부하며 접수 및 면접은 12~14일. 추첨일은 16일 오전 10시. 등록 마감은 12월 20일. 문의 360-5593~4.

▲국제로타리 3710지구 2006-07년도 연구교환단(GSE) 단원모집=만 25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사업 및 전문직 소유자, 3710지구내 근무자 또는 거주자, 영어 사용 가능자 등을 대상으로 12월2일까지 접수. 모집인원 4명. 합격자 발표는 12월 8일,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www.ri3710.org) 안내. 문의 223-3710,3731 또는 www.rotary.org

▲총신대 사회교육원 국제멀티테라피 교육센터 수강생 모집=중국 북경중의약대 단기연수 및 국가자격증코스. 문의 02-591-0745

▲8㎜ 영화 시나리오(드라마 포함) 스터디그룹 참가자 모집=20~30대로, 공동 창작 모임에 관심있는 자. 010-6620-7179

부음

▲이보임씨 별세 백남태·남익(우리들 약국)·남길(서전사 대표)·남환(개인사업)·남윤(한국전기안전공사)씨 모친상=발인 28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515-4488

▲장말순씨 별세 고재석·문제완·제갑·선자·혜자씨 모친상 서기수·강항대씨 빙모상=발인 28일(화) 그린장례식장 11분향소. 250-4411

▲류제길씨 별세 류인상·재상·윤상·경애·경미씨 부친상 김점호·서동택씨 빙부상=발인 28일(화)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홍효순씨 별세 박종옥씨 상배 박준호·민호·현주·혜심·경순씨 모친상 오종오·김경오씨 빙모상=발인 28일(화)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250-4410

▲오경석씨 별세 주익·지훈·화정씨 부친상 이성환씨 빙부상=발인 27일(월)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250-4412

가족처럼 따뜻한 정성으로…
압 귀빈장례식장
광산구 우산동 80m 도로변
(062) 943-4444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 특별분양
(062) 521-1100